

김해 부경동물원의 동물 사육 환경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 내용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2013년 9월 26일 김해 부경동물원을 방문해 동물을 사육, 전시하고 있는 환경과 관리 상태를 관찰한 결과, 관람객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를 위해하는 요소가 많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김해 시청의 감독과 시정을 요청합니다.

■ 사유

1. 동물과 관람객 간의 안전거리 부재

사람과 동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원인이 되고, 야생동물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공격성을 떨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경동물원에서는

- 사육사가 흰손기변원숭이를 어린이 관람객들과 안전 거리도 없이 데리고 확보하며 만지기를 종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1)
- ‘체험’을 위해 따로 정해진 시간과 공간도 없이 사육사가 뱀을 들고 관람객 사이를 확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2)
- 병아리, 거북이 등은 만지지 말라는 감독이나 표지판도 없이 관람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진 3)
- , 토끼, 프레리독 등 소동물 우리, 말 우리 등에도 관람객과 동물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안내문 부착 등이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 조류사의 경우 자물쇠도 걸려있지 않아 나이 어린 관람객들이 문을 함부로 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진 4)

2.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육 공간에서 동물이 전시되는 상황과 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 환경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경동물원에서는

- 약 30cm x 40cm 크기 케이지에 너구리 두 마리가 장기간 갇혀있는 상태가 목격되었습니다. 사육 시설 청소 등의 이유로 단시간 동안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 관찰했으나 두 시간이 넘도록 케이지에 갇혀 있었고, 동물들이 상동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 동일한 사육 상태에서 전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5,6)
- 여러 종류의 조류가 작은 케이지에 넣어진 상태로 유리벽으로 된 상자에 넣어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진 7)
- 흰손기번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의 동물이 다른 개체들과의 분리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육장 안에서도 몸을 움직이거나 일어서기도 힘든 크기의 케이지에 넣어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진 8,9,10)

이러한 사육 상태는 동물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린 관람객에게도 반생태적이고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의 이상 증가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증한 프레리독의 경우 서로 몸을 탐처럼 켜고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11)

4. 외상이 있는 동물

모든 개체의 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말의 경우 피부 질환 혹은 상처로 보이는 외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경동물원처럼 많은 숫자의 대형 동물이 전시되는 동물원에서는 상주 수의사 혹은 주기적으로 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수의사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 12,13,14)

5. 야생동물의 밀폐 전시

보통의 동물원은 아무리 전시 시설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랑이, 늑대, 원숭이 등생태적 습성상 바깥에 사는 야생 동물은 바깥 공기와 자연 채광에 노출되며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관람객들에 전시되는 야외 우리와 관람객의 눈을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실로 이루어진 시설에 사육됩니다. 부경동물원에서는 이런 동물들이 외부 공기와는 완벽히 차단된 실내 공간에서, 관람객과 겨우 투명한 벽 한 개를 사이에 둔 환경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육 환경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야생동물들이 장기간 이런 환경에 사육되었을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동물들이 움직임이 없는 무기력증을 보였고 원숭이의 경우 장시간 바닥에 엎드려있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15,16)

6. 사육장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안내문의 부재

이런 비정상적인 사육 시설 구조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전시되는 시설 벽면에는 동물의 주위를 끌기 위해 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내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7. 동물의 정신적 장애와 과격행동으로 인한 관람객의 공포심 조성

주로 원숭이의 경우 사육장 벽을 과격하게 치는 등 좁고 열악한 실내 시설에서 장기간 전시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물원 측은 ‘동물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 먹이를 가지고 놀릴 경우’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표지판을 붙여놓았으나, 먹이를 급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람객이 지나갈 때 돌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행동 풍부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육 환경 개선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진 17)

8. 방치 동물

동물사 후미진 곳에는 전시되지 않는 조류가 방치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18)

9. 식수 공급의 부재

관찰한 거의 모든 동물사, 특히 내부에 전시된 동물 우리에서는 식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결론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관찰된 사육환경과 관리 상황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김해시뿐 아니라 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지난 9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내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연대체를 조직해 국민과 전국 공영동물원,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법>이 통과되면, 김해 부경동물원 같은 시설은 시설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관람객의 안전이 피해를 보거나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아울러 김해시의 위상이 저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8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참고자료

1. 언론보도

2013년 10월 7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62218245&code=610103

2013년 10월 7일 헤럴드생생뉴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07000164&md=20131008003419_AT

2013년 9월 30일 머니투데이 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3016364250134&outlink=1>

2. 자료사진